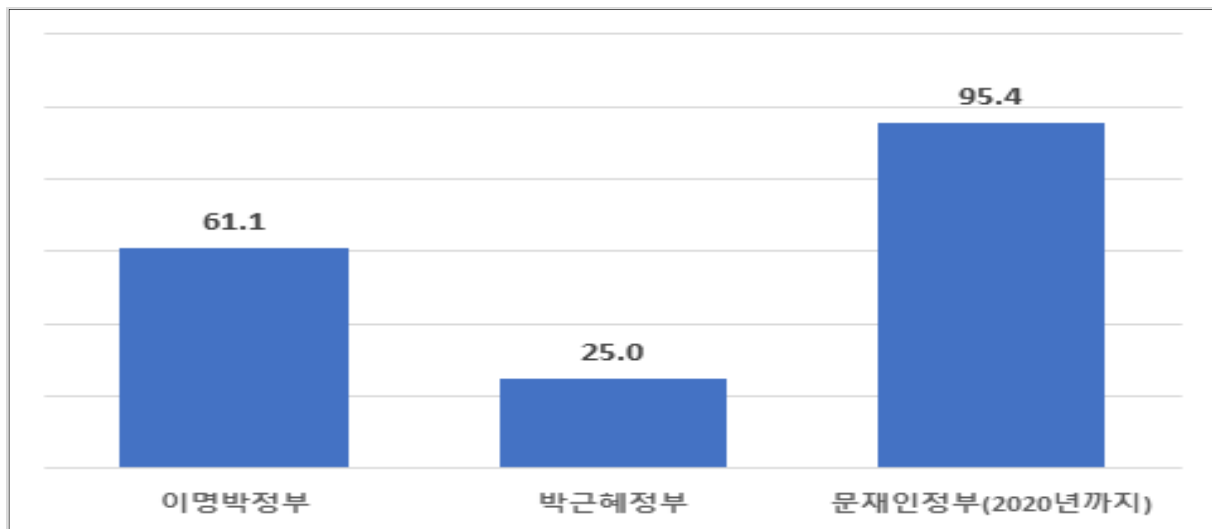


- 예비타당성 조사(예타) 면제, 문정부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합친 것보다 많아
 - 문재인 정부 재임 기간 (2020년까지 기준) 중 예타면제 사업은 95.4조 원
 - 반면 이명박 정부 61.1조 원 + 박근혜 정부 25조 원 = 86.1조 원
 -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예타 면제까지 포함하면 100조 원이 넘는 건 기정사실
- 이로 인해 국민 혈세 낭비는 물론 예타가 '선거 매표용'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음
-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
 - IMF 직후인 1999년 도입
 - 무분별한 사업지출로 인한 혈세 낭비를 막고, 효율적 예산을 운용하기 위한 취지
 -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, 재정투입 300억 원 이상 사업이 대상
 - 다만, 재난복구, 국방, 지역 균형, 남북경협 등 국가 정책적 추진 사업 등은 면제 대상

예타 면제사업, 이명박+박근혜 정부 총합보다 문재인 정부가 더 많아

단위: 조 원



자료: 기획재정부, '2008~2020년 예타 면제 사업비 현황'

출처 : 시사오늘(<http://www.sisaon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24713>)